

트럼프 쇼크의 멕시코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금융연구실 천대중 연구위원 djcheon@wfri.re.kr

멕시코에 대한 강경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가 美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페소화 환율과 주가가 급락하면서 멕시코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對멕시코 강경책은 NAFTA 재협상·이전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등의 통상정책과 불법이민자 추방·국경 장벽건설 등의 이민정책으로 요약된다. 現 멕시코 거시경제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최근의 금융시장 반응은 리스크를 과도하게 先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트럼프의 강경책이 원안대로 실시된다고 가정할 경우 멕시코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책은 산업·고용 측면에서 멕시코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정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원안이 고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멕시코 진출 기업들은 관련 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트럼프 당선 후 페소/달러 환율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멕시코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

- 11월 8일 멕시코에 대한 강경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되자 멕시코 통화가치와 주가가 동반 급락하는 등 멕시코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모습
 - 멕시코 페소화는 美 대선이 본격화된 올해 3월부터 약세 기조를 보여, 11월 8일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환율이 장중 신고가(21.0 달러)를 경신
 - 멕시코 주가지수도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 장중 8.5% 급락
- 멕시코 중앙은행은 작년 12월 이후 환율 방어를 위해 총 6회에 걸쳐 275bp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환율 상승세는 지속
 - 트럼프 당선 직후인 11월 17일에 50bp 인상한데 이어 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12월 15일에도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상
- 트럼프의 취임일(2017년 1월 20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멕

멕시코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증가

- 지난 12월 9일 신평사 피치는 트럼프 당선 후 멕시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멕시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멕시코 페소/달러 & 기준금리 추이



멕시코 주가지수 추이



■ 트럼프의 멕시코 관련 대선공약은 크게 통상 정책과 이민 정책으로 구분

- 통상 정책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결렬시 탈퇴), 그리고 멕시코로 이전한 기업들의 수출품에 대한 35% 관세 부과가 주요 골자
 - *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역내 교역 품목의 99.9%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일부 멕시코 농산물 예외)
- 트럼프는 NAFTA의 혜택이 멕시코에만 집중되어 있고, 저가 노동력을 찾아 멕시코로 이주한 美 제조업체들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주장
- 이민 정책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고, 美·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
 - 현재 미국내 약 590만명의 멕시코계 불법이민자 중에서 범죄전과가 있는 2~300만명을 대상으로 강제 송환을 우선 추진
 - 또한 불법이민이 근절되도록 美·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자금부담 거부 시 송금 업무 정지)

■ 現 멕시코 거시경제 지표들을 감안할 때 최근의 금융시장 반응은 리스크를 과도하게 先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트럼프의 강경책이 원안대로 실시된다고 가정할 경우 멕시코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

- 멕시코의 경제성장률과 재정·경상수지, 정부부채,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금융시장 반응은 리스크를 지나치게 先반영
 - 하지만 트럼프의 강경책이 원안대로 실행된다고 가정할 때, 대미수출 감소 및 이전수지 악화 등 멕시코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멕시코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 지표

	기준치 (IMF)	멕시코	
		2015	2016(e)
경제성장률	-	2.5%	2.1%
물가상승률	5.0%	2.7%	2.8%
재정수지/GDP	-2.0%	-3.5%	-3.0%
정부부채/GDP	50.0%	46.1%	-
경상수지/GDP	-5.0%	-2.8%	-3.0%
단기외채/외환보유액	100%	39.3%	-
(외환보유액)	-	176.7억\$	176.3억\$

주: 기준치는 IMF(1999) 기준, 2016년 전망치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 NAFTA 탈퇴 및 이전기업 관세부과(35%) 등의 통상정책이 실행될 경우 NAFTA 역내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멕시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멕시코 경제는 그동안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시장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저가 노동력 및 NAFTA 가입에 따른 무관세 혜택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성장

멕시코의 국가별 수출입 비중 및 무역수지 현황

국가별 수출입 비중(%)				순위	국가별 무역수지(억 달러)			
수출국	비중	수입국	비중		흑자국	금액	적자국	금액
미국	81.0	미국	46.2	1	미국	1,003.3	중국	-536.1
캐나다	2.8	중국	18.1	2	콜롬비아	16.4	일본	-114.7
중국	1.4	일본	4.6	3	과테말라	10.1	한국	-92.7
일본	1.0	독일	3.6	4	영국	9.7	독일	-84.9
독일	0.9	한국	3.5	5	파나마	7.1	말련	-65.9

주: 2016년 1~10월 기준

- 불법이민 대책은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에 타격을 주고, 송환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멕시코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
 - 또한 경상수지 항목 중에서 유일한 흑자 항목인 이전수지*가 줄어들 경우 경상수지 적자 폭의 확대로도 연결

* 2015년 멕시코의 이전수지는 252.1억 달러이며, 동기간 미국내 멕시코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232.9억 달러로 이전수지의 92.4%를 차지

멕시코 해외근로자 송금액 추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전수지(억달러)	216.5	216.2	231.5	227.7	226.5	240.3	252.1
해외근로자송금액(억달러)	213.1	213.0	228.0	224.4	223.0	236.5	247.8
GDP대비 비중	2.4%	2.0%	1.9%	1.9%	1.8%	1.8%	2.2%

주: GDP대비 비중은 명목GDP대비 근로자송금액 비중, 해외근로자송금액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발생

■ **트럼프의 강경정책은 美 경제에도 큰 부담이라는 점에서 조정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그간의 파격적인 행보를 감안할 때 원안의 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 경제에 있어 멕시코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강경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큰 부담
 - 2016년(1~10월) 기준 미국 전체 수출액의 11.8%, 수입액의 10.5%를 멕시코가 차지하며,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의 약 40%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등 공급망으로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트럼프의 기존 통상정책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예상
 - 약 490만개로 추정되는 NAFTA 관련 미국내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고, 특히 멕시코 불법이민자가 미국 노동력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 무엇보다도 관세 부담은 결국 양국의 소비자의 몫으로 귀결(WTO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멕시코는 미국산 자동차에 2.5%, 농산물에 6.4%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은 멕시코산 산업재에 7.7%, 농산물에 38.4%의 세금을 부과)
-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파격적인 행보를 감안할 때, 원안을 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멕시코 진출 또는 진출 예정 기업들은 당분간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어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할 필요**

- 현재 국내 전기전자·자동차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음
 - 멕시코산 수입관세 부과 시 현지법인의 대미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며, 그밖에 멕시코 경제의 불확실성·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및 환위험도 고려
- 금융 부문의 멕시코 익스포저는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기 진출 금융기관 및 진출 예정 기관의 경우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필요
 - 2016년 6월말 현재 한국 금융기관 전체의 대외 익스포저는 1,570억 달러 수준이며, 이중 멕시코 익스포저는 20.9억 달러로 비중이 1.3%에 불과